

## 한국 수영 쌍두마차 황선우·김우민 '금빛 역영'

한국 수영의 '쌍두마차' 황선우(21), 김우민(23·이상 강원도청)이 나란히 '금빛 역영'을 선보이며 새 역사를 합작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선우는 전날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은메달, 2023년 후쿠오카 대회 동메달을 땀던 황선우는 개인 첫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수영의 '전설' 박태환은 주종목이 아닌 자유형 200m에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2007년 멜버



▲ 2024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위로 도착한 황선우(왼쪽)와 2위로 들어온 김우민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른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것이 전부였다.

아시아로 범위를 넓혀도 황선우가 역대 두 번째다. 황선우 이전에 아시아 선수가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17년 부다페스트, 2019년 광주 대회의 쑨양(중국)뿐이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국 수영에는 경사가 있었다. 김우민이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김우민에 이어 황선우까지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 수영은 세계선수권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리스트를 2명이나 배출하게 됐다. 단일 세계선수권에서 복수의 한국인 메달리스트가 나온 것도 이번이 최초다.

## MLB 여성 심판 나오나 ... 17년 만에 시범경기 초청받아



▲ 2023년 애리조나 가을 리그 경기 중인 젠 파월 심판. 사진=MLB.com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초의 여성 심판이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AP통신 등은 전날, 2024 MLB 스프링캠프 시범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진에 초청된 마이너리그 심판 중 '트리플A' 소속 여성 심판인 젠 파월(47)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MLB 스프링캠프에 여성 심판이 배정된 건 2007년 리아 코르테시오 심판 이후 약 17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월은 소프트볼 선수 출신으로, 2016년 마이너리그 심판으로 입문한 뒤 지난해 트리플A로 승격됐다.

앞서 2020년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김 응이 최초 여성 단장이 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의 엘리사 내킨 코치가 감독 면접을 봤다. 그러나 실제 메이저리그 심판으로 임명된 여성은 없었다. 남성 선수만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상대 구단 감독은 물론, 선수와 협한 말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지는 탓이다.

현재 메이저리그와 정식 계약을 맺은 심판은 76명이다. 이들이 부상,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스프링캠프에 초청된 마이너리그 심판 중 일부가 '콜업' 된다.

지난해에는 스프링캠프에 초청된 26명의 심판 중 21명이 정규 시즌에 콜업을 받아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다. 17년 만에 스프링캠프에 초청된 여성 심판인 파월의 메이저리그 콜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배구 시합에 '성전환' 선수 우르르 ... "여자 경기 맞냐"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 성전환 선수 5명이 한꺼번에 출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타리오주 공립 대학교 세네카 칼리지(세네카)와 센테니얼 칼리지(센타니얼) 간 여자 배구 경기가 열렸다.



▲ 캐나다 대학 여자 배구 경기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들. 사진=캐나다 리벨뉴스

해당 경기에는 세네카스팀에서 3명, 센테니얼 팀에서 2명의 트랜스젠더가 출전했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풀타임으로 뛰면서 압도적인 파워로 경기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 선수들은 벤치에 머물러야 했다.

경기는 '더 많은' 성전환 선수가 출전한 세네카의 승

리로 끝났다. 이에 현지에서는 성전환 선수들에 대한 정확한 출전 규정이 없어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네카 소속 트랜스젠더 선수 중 한 명인 프란츠 라가다스는 2022-23시즌 남자 배구팀에 소속됐던 선수로 1년도 되지 않아 '성전환'을 했다며 여자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온타리오대학체육협회 소속 성전환 선수는 6명으

로 이 중 5명은 호르몬치료가 외과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자 경기 맞냐", "진짜 여자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있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선수들이 경기에 나섰다" 등 불편함을 드러냈다.

##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